

동해해수청, 강원권역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항로표지 수요조사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도 동해해역을 대상으로 선박 통항 시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다가오는 5월까지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사용하여 항 입구, 암초 등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해 보조시설로서 등대, 등표, 레이더비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항로표지 수요조사는 강원도 동해에 소재하는 군(軍),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도선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으로 항로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할 예정이다.

참고로, 동해해수청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속초해양경찰서, 고성군 및 봉포어촌계에서 요청한 등표 2기* 설치 계획을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 고성군 봉포항 전면해상 죽도 인근의 암초 표시, 2027년 설치 예정

등대, 등표 등 항로표지 설치나 기능개선이 필요한 관계기관 등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항로표지 설치(개선)요구서를 5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선박 통항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안전한 강원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현영섭 (033-520-6277)

항로표지의 종류


1. 광파표지(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위치 표시)

등대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해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
등표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등화를 갖춘 구조물
등부표		선박에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을 알려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해상의 고정 위치에 띄워놓은 등화를 갖춘 구조물
조사등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부분 등을 조사(照射)하여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표지
도등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 안전한 항로를 알리기 위해 항로의 연장 선상에 고저차가 있도록 등화를 설치한 2기의 탑 모양 구조물


2. 형상표지(주간에 시인이 가능하도록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 표시)

입표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구조물(등화 없음)
-----------	---	---

3. 음파표지(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소리를 내어 위치 표시)

전기혼		전기장치에 의한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를 울려 소리를 내는 표지
------------	---	-------------------------------------

4. 전파표지(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것)

레이더 비콘		무지향성 전파를 24시간 발사하여 선박에서 사용중인 레이더 화면상에 모르스 휘선을 나타내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